

데살로니가 전서 1-3
Tape # C2611
By Chuck Smith

Let's turn to first Thessalonians. Paul, the apostle, o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had taken Silas with him, who was commended by the church in Jerusalem as one of the leaders. When they got to Derbe, Timothy joined their evangelistic team. As they journeyed on, they came to Troas and Paul's desire was to go to Bithynia, but the spirit forbade him.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사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실라와 함께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데베에 갔을 때 디모데가 그들의 사역에 합류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행중 드로아에 왔을 때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And there, in Troas, as Paul was sick, he had a vision. And there was a man of Macedonia calling him to come and help. And so Paul immediately got a ship, crossed the Aegean and came to Macedonian, the area of Philippi, at which point Luke joined Paul's team. Whether or not Luke was the man that Paul saw in his vision, we do not know.

드로아에서 바울이 병중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와서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것 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배를 타고 아게해를 거쳐 누가가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환상중에 본 사람이 누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It is quite possible that it was Luke that Paul saw. Nonetheless, they came to Philippi and they began to share Jesus Christ there in Philippi by the river with ladies who would go there for prayer. And a lady who was a merchant, whose name was Lydia, was converted along with many others.

그러나 바울이 본사람이 누가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던 그들은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러 간 여자들과 함께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 □□□□□□. □□□□□□ □□□□ □□ □□ □□ □□ 많은 □□□□ □□ □□□□ □□ □□□□□□.

There was a young girl in the area of Philippi who was possessed by evil spirits and Paul,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freed her. And this caused a ruckus among those men that were controlling this young girl and actually profiting by her divination, a gift that she had through the demon powers. And so they created an uproar; they had Paul and his company arrested. They were beaten and thrown into the dungeon of the prison. At midnight, an earthquake opened the doors and the Philippine jailer, when he awoke finding the doors open, was ready to commit suicide when Paul stopped him and he came trembling and said, "What must I do to be saved?" And Paul shared the gospel with him. He took Paul home; Paul shared the gospel with his family.

빌립보 지역에 귀신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 인하여, 이소녀를 조종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봄으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토굴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정쯤에 지진이 옥문을 여니 빌립보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And then the magistrates of the city found out that Paul was a Roman citizen, as was Silas, and so they said, "Hey, tell your friends to just get out of town." And Paul said, "Look, they beat us publicly, they made a big public display of the whole thing; let them come down themselves and deliver us." You know. So, Paul forced the issue and they came down, asked Paul to leave Philippi.

도시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임을 발견하고 "여봐, 네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이 성을 즉시로 떠나라" 하자 바울이 "보라! 그들이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모든일을 구경거리로 삼았음에, 그들로 하여금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문제를 삼으려 하자 그들이 찾아와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So, Paul with Silas, Timothy and Luke began to follow the Roman highway south from Philippi. They came through Amphipolis. They pass through Apollonia and they came to Thessalonica, which was a principle Roman city, and is an important city today. In modern Greece, Salonica is the same as the Thessalonica of the Bible. It was here where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and for three Sabbath days reasoned with them out of the scriptures proving that Jesus was the Messiah. And many of the Jews believed; some of them did not.

그래서, 바울은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빌립보 로 부터 로마 남쪽의 대로를 따라 갑니다. 그들은 암비볼리 를 지나 아볼로니아 를 거쳐 로마의 주요 도시의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대 그리스에서 살로니카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세 안식일 동안을 예수가 메시아 임을 증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이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Those who did not believe stirred up a ruckus against Paul, and Paul escaped from the city of Thessalonica and went on down to Berea. And there, they again shared until certain of Jews, who had created the problems of Thessalonica, came to Berea, and so Paul went on to Athens. Later, Luke and Silvanus, who is also Silas, and Timothy joined Paul and they journeyed to Corinth, but Paul was concerned about the believers in Thessalonica. So Paul asked Timothy to go back to Thessalonica to find out how the believers were doing.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상대로 소동을 피웠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하여 베뢰아로 갔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부렸던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따라왔기에 바울은 아덴 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누가와 실바누스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여 고린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자들이 염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믿는자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알아보기를 청하였습니다.

Now, from the record it would appear that Paul's ministry in Thessalonica was a very short ministry, as short as possible, just four weeks. As they mentioned that three weeks ministering each Sabbath day, for three Sabbath days in the synagogue, and then the trouble that was created. And so it would

appear that Paul's time there among them was extremely short. When Paul and his company came to them, they were probably still pretty-well blood...well, not bloody, but swollen and bruised from the beatings that they had received in Philippi. Their clothes probably ripped, they probably looked pretty much a mess, but yet, Paul speaks about its coming to them in afflictions. And so, the marks of the beatings still upon him, still very obvious there on his body when he first came to Thessalonica.

이제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아주 짧게, 4주도 채 안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했던 매 안식일에 가르쳤던 3주, 회당에서의 세 안식일, 그리고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들과의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상당히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피를 흘리진 않더라도 빌립보에서 받은 매맞음으로 인하여 붓고,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아마도 찢어지고 불상사납게 되었으나 바울은 그들이 받게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매맞은 자국들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처음 왔을 때 에도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Timothy came back to Thessalonica to find the welfare of the church, found it in good health, found them really going on in the Lord, and returned to Corinth to share with Paul how that the church was prospering and going on in the Lord. And so Paul then wrote this letter, which is probably the first letter that Paul wrote to the churches. He wrote from Corinth back to Thessalonica this first epistle, as he seeks to correct some of the misconception that had arisen.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에 교회의 안녕을 확인하려고 돌아와서 교회가 건강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린도에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번영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편지를 썼는데 아마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쓴 최초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후 고린도에서 쓴 이 공동서한은 그동안 발생된 오해들을 수정하고 싶어였습니다.

Now, the interesting thing to me is that from the gist of this letter of Paul, one of the most important truths that Paul had emphasized in that very short ministry was that of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And all the way through the first epistle, he is making mention of that hope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And of course, next week in our lesson, as we get to chapters four and five, we'll

be dealing with Paul's teaching on the rapture of the church, and all, as he is writing to the Thessalonians concerning the things that he had been teaching them and some of the misunderstandings that had arisen from his teaching. But I am amazed at what a tremendous foundation Paul was able to lay in the word of God in the hearts of these people in such a short time, as is evidenced by this epistle.

이제 저에게 이 바울의 서신의 골자중 흥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진실중 하나인 재림하실 예수에 대하여 이 매우 짧은 선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은 다시오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있습니다. 물론, 다음주 우리가 공부할때에,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들림받는것에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염려함으로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에대한 편지에 대하여 공부할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선교에서 증거하고있는,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이사람들에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지식입니다.

So, with that kind of a background, the year's about fifty-three, fifty-four. Paul is o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he's just arrived in Corinth, has begun his ministry there, which will continue for one year and six months, as the Lord spoke to him in Corinth and said, "Stick here, Paul. I've got a lot of people that are gonna believe on Me in this place." And so, he is sent back now to Thessalonica, he has heard from Timothy the welfare of the church, and he immediately writes them this letter.

그런 주후 53년, 54년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일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려할 때에 하나님 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돌아갔을때에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건강함을 듣고 바로 그들에게 이편지를 썼습니다.

*Paul, and Silvanus, [another name for Silas] and
Timotheus, un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which is in
God the Father and in the Lord Jesus Christ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1:1)*

The church in God, the church in Jesus Christ. And presently Paul is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 which the message came to them in much assurance. So again, the Father, the Son, the Spirit in which the church was established.

하나님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좀더 확신을 주는 복음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Grace be un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1: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1)*

Notice how often Paul is relating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together. If Jesus was not God, such a relationship and relating their names together constantly would be blasphemy. Some people say, "But why doesn't he also include the Holy Spirit?" Well, you remember that Paul's epistles are actually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nd Jesus said, "When the Holy Spirit is come, He will not testify of Himself, but He will testify of Me." And so, it is sufficient that in the inspiring of this writing by the Holy Spirit that there is joined those two persons of the Godhead: the Father and the Son.

바울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연결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 이 아니라면, 그러한 관계와 그들의 이름을 계속하여 같이 연결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일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는 성령님을 같이 포함 시키지 않았지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선교가 실제로 성령님의 지시에 의한 것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는 그자신을 증거함이 아니요,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와 아들, 신성하신 두분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에 의하여 이 편지가 쓰여 진 것은 확실합니다.

Paul's "grace and peace unto you" are typical Pauline greetings. The grace and peace, the Siamese twins of the New Testament, they're always coupled together; wherever you find one, you'll find the other. And they are always in that order: grace and peace, because you cannot experience the peace of God until you understand and have received the grace of God. The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is essential to knowing the peace of God in your heart and life.

바울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평상적인 바울식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신약에서 삼의 쌍둥이처럼, 그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순서대로 입니다.: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For years I had peace with God, but I did not have the peace of God, because I did not know the grace of God. I related to God in a legal way. My righteousness was predicated upon my good efforts, my devotional time, my prayer life, and my study of the word. I had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여러 해 동안 저는 하나님과 함께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의는 선한 행실과, 신앙시간, 기도생활과 저의 말씀공부에 의하여 단정 지워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Then I came to an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and I came into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And when I did, I suddenly experienced the peace of God, something I'd never known in my Christian life. And what a blessing it was to know the peace of God within my heart, as I now rest where God rest in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And so, the gospel came to me with much assurance, only after I experienced the grace of God. Up until that time, the gospel...I had no assurance in the gospel. I didn't really know if I was saved or not from one week to the next, but the much assurance came with the grace.

So...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갑자기 저의 기독교인 생활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쳐놓으신 일에 대하여 안식할수 있는 것 처럼 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복음이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복음... 저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주일을 지나고 또 한주일을 지내는 동안 구원 받았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확신이 왔습니다.



We give thanks unto God always for you all,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1:2);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에 너희를 말함은(1:2)

And again, how Paul does refer to his prayer life in each of his epistles. Paul was a man of prayer. As we look at the men that God has used in the New Testament, those men that were used mightily of God, we find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are endemic to all of them. And one is that they were men of prayer. If you want God to really use your life, it is necessary that you be in close communion with God. And prayer, of course, is that means by which we remain in close touch with him.

그러면 다시, 바울은 어떻게 그의 매 서신 속에서 그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고 있나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 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강력하게 사용된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인것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사용 되어지기길 원한다면,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안에 있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는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남아 있다는 뜻 입니다.

Prayer is not a monologue, though so often we make it such, but prayer should always be a dialogue. In fact, as the years have past, I have spent more time in the listening side of prayer than I have the talking side of prayer. When I first started my communication with God, I did all the talking, very little listening.

우리가 항상 그것을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대화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는 기도의 듣는측에 있었다기보다는 주로 말하는 측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 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처음 시작 하였을때, 저는 매우 적게 듣고 말하기만 하였습니다.

But as years went by and my relationship with God grew, I did less talking and more listening, for I am convinced that what God has to say to m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d have to say to Him. And so I've learned to listen to God, and I've sought to listen before I speak, in order that God might speak to my heart what is His purpose, His will, His desire in a particular matter, so that I may make that my prayer. Paul, a man of prayer, and thus God used him;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그분께 말하는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지기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저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전에 하나님이 그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것을 제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기전에 생각해보기위하여 듣는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ing without ceasing your work of faith, labour of love, and patience of hope (1:3)

너희의 믿음의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1:3)

Again, as in Galatians, as in Ephesians, and as in the Corinthian epistles, Paul links these three: faith, hope, love. Remember in first Corinthians thirteen? “And now abide these three: faith, hope, love.” And so, he is constantly relating these three things.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고린도 서에서도 바울은 이 세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 시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기억하시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리고 그는 이 세가지를 계속하여 연결합니다.

First of all, they had the work of faith. If you have true faith, there is that work that is the natural result of faith. And if the faith does not affect your actions, then it is not a true faith. A person with true faith, that faith will affect what they do. It has an effect upon their actions, upon their works; it is producing a work in their life. And so the work of faith. Faith is not a work, but faith does produce a certain result in us: the work of faith.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믿음 가운데 일을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일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소산인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 말입니다.

The labor of love. Now, the word labor, as we pointed out to you last Thursday night as we studied this word in the message of Jesus to the church of Ephesus in Revelation two, the word means to labor to the point of weariness or exhaustion. And only can bring that kind of labor.

사랑의 수고. 이제, 수고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난 목요일밤에 지적한것처럼, 이 단어의 뜻은 참고 견딘것 혹은 게으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만이 그런 종류의 수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d how many times do we see this exemplified in a mother going around the house laboring to the point of exhaustion, especially when the children are little and there are all those responsibilities? And yet, it's a labor of love, because you look at those beautiful little faces, and you don't really think,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어머니가 피곤해 질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것을 봅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때 그리고 그모든 책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조그마한 얼굴들을 보기때문에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고 입니다.

"Oh my, I'm so tired and all. That dirty little face, just throw it in bed, you know, and let it go." But you can't help but just go in and get the warm wash rag and the towel and come and wash the hands and wash the face and kiss the cheek, though you are as tired as can be because all that you've done all day long, but that's the labor of love.

"오, 나는 정말 피곤하고 지쳤어. 저 더러운 작은 얼굴, 침대에 던져 버렸으면, 그리고 내버려 뒀으면." 하지만 여러분은 하루종일 일을 했기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수없이 그냥 가서 따뜻한 수건과 걸레를 가져다가 돌아와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씻어주고 뺨에 입술을 맞춰 줍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 입니다

And how glorious when our love for God is such that we don't really consider the weariness of our own bodies. But as Paul, the love of Christ just constrains me, and that labor of love...and again, that's the only motive that God will really accept. Remember, that was the problem of the church in Ephesus:

□□가 하나님을 사랑할때 우리의 몸이 피곤한것을 개의치 않는것은 얼마나 영광 스런 일입니까? □□□ 바울은, □□□□□ □□이 나를 묶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 □□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였음을 기억 하십시오.

they were laboring, but without love, and that's what the Lord really spoke to them about. And He said, "Unless you begin to love, unless you return to that first love, I'm gonna take the candlestick and move it out of its place." And so, the only labor that God really accepts from us is the labor of love. For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sell all I have, and bestow on the poor, if I have not love...profits mean nothing. The labor of love.

□□□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한, 내가 처음 사랑 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내가 촛대를 그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뿐입니다. 내가 내몸을 불사를 지라도, 나의 소유의 모두를 팔아서 가난한자에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 뿐입니다.

And then the...

Patience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sight of God and our Father (1:3);

그리고 나서..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1:3)

So that patience, learning to wait upon God. Boy, what a time I have with that. I don't know why that should be so difficult, and yet, to me, it's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in my Christian experience, to wait upon God. I, so often, am giving God time limits. "Lord, I'll give you till Saturday to work this thing out, and if you don't do something by Saturday, then I'm gonna have to step in and do something myself." But to just wait upon God; you see, to wait upon God takes great faith. I have to believe that God is in control and that God is working, though I may not see it.

바로 그인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것과 있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 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까지도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는것이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일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시간 제한을 드립니다. “ 주님, 제가 주님께서 토요일 까지 이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까지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무슨일이라도 하기위하여 저지를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는것은;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위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며 역사하심을 제가 비록 보지 못하여도 믿어야 합니다.

How many problems have been created because we didn't wait upon God? How many times with Abraham do we move to take things into our own hands, knowing what God has purposed, knowing what God has planned? God has not done it in the timeframe that I feel He ought to do it, and so Lord, we

know you wanna do it, but obviously you can't do it without our help and so we're gonna help you out, Lord. And oh my, what problems we create when we step in to help God out. But that's been the problem, I think, through the century, is patience of hope; just waiting upon God, waiting upon His time, waiting on Him to work in His time, knowing that He is going to work, confident that God is gonna work.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손으로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서 해주실거라고 느끼는 시간 안에 일을 하시지 않았군요, 그리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도움없이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 나갔을때 어떠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 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기를 통하여, 소망의 인내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를 기다리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확신 하는 것입니다.

Now, there are many exhortations to patience. "You have need of patience," we are told in Hebrews, "that after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ight obtain the promise." We are told that those of the Old Testament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inherited the promises of God. And then James exhorts us to patience into the coming...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Establish your souls, be patient, for the Lord is waiting for the complete fruit of harvest. So, they were patient in their hope, laboring in love. They were...had the works of faith. And all of this, after just one month of Paul's ministry to them.

이제 인내에는 많은 extortion들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에서 말하기를 "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당신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ames에서는 다가올 것에 대한 인내를 요구 하고 잇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림을. 하나님은 거두어 드릴 완전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심을 인내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 하십시오. 그럼으로 사랑의 수고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교 했던 한달후에 있었습니다.

Knowing, brethren beloved, your election of God (1: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1:4)

Now, this is a doctrine that we usually don't teach new believers. We usually wait until a person is pretty-well founded in the scriptures before we broach this theological problem of divine election. But Paul saw it necessary to teach divine election unto these new believers in Thessalonica. He speaks of them knowing the fact that they were elected by God.

이제 이것은 새 신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 지 않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점에 맞닥뜨리기전 말씀으로 기초가 잘 정립 될때 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People have problems with divine election. They have a problem with God making choices. However, we surely do appreciate the fact that God has given to us the capacity of choice. I was glad that the Lord allowed me to choose the one I was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as a companion. He just didn't throw anybody at me and say, "Here, take that." But He allowed me the choice, and He also allowed her the choice when I gave it to her. So that we're not forced into the company of someone with whom we might be completely incompatible or someone that we really have no real attraction to.

사람들은 선택 받음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하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일생을 같이할 배우자를 제가 선택할수 있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나 던져주시면서 “ 여기있다, 받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할수 있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원했을때에도 그녀에게 선택할수있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전혀 상반된 사람을 만나도록 강요 당하지 않았습디다.

Now, if God has given to us the choice of those whom we are going to have as our companions or associates, why shouldn't God have the right to choose those He wanted to be with? And indeed He has. Now, that doesn't trouble me at all. It thrills me that He chose me. And so knowing that God has electe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 didn't choose me. I chose you and ordained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s, that you should bring forth fruit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soever you should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it to you" (John 15:16). "I've chosen you," He said.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동반자로써, 혹은 협력자들을 선택할수있도록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만이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것.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택한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인정 하였으니 너희는 그 열매를 가져오고 너희 열매들은 많아질 것이라.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것임이라(요한복음 15:16).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So the scripture does teach divine election. It never teaches divine election apart from the foreknowledge of God. Whom He did foreknow, He did also predestinate, that they shall be conformed in the image of His Son. And so Paul taught the doctrine of divine election to the church in just a month's time.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지로 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아시고, 예정하신 자들 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안에서 순종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 바울은 겨우 한달 만에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 의 교리에대하여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For our gospel came not unto you in word only, but also in power, and in the Holy Ghost, and in much assurance (1:5);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1:5)

I think that that's probably the weakness of the gospel today. Is that so many times we are proclaiming the gospel in word only, and it lacks the power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at assurance with it. Paul, you remember, went from here to Corinth. Later, when he wrote to the Corinthians, he said to them, "And my preaching was not with the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but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power." We need more of that kind of preaching which is a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God.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취약점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단어만 가지고 선언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을 기억 하지요. 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는 " 나의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것이 아니요 성령님과 능력의 역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 역사에 의한 가르침 같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And so...

[The word came] unto you not in the word only, the gospel came not in word only, but also in power, in the Holy Ghost, and in much assurance; as you know what manner of men we were among you for your sake (1:5).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1:5)

So, what manner of men we were for your sakes, men ministering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그럼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것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수 있습니다.

And you became followers of us, and of the Lord, having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나니(1:6)

And so, again Paul here makes mention of the fact of his probably physical appearance: the beating that he had received at Philippi, and yet they received the word in the joy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바울은 이곳에서 그의 아마도 육체적인 외관 의 사실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받았었던 매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았음을.

So that ye were examples to all that believe in Macedonia and in Achaia. For from you sounded out the word of the Lord not only in Macedonia and Achaia, but also in every place your faith to God-ward is spread abroad; so that we need not to speak anything (1:7-8).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1:7-8).

Marvelous. The church here could not be more than six months old and yet, from them already the word of the Lord was sounding out to all of the area around them. Their faith toward God was spread abroad, the reputation of their believers there.

신기합니다. 이곳 교회는 여섯달도 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이미 주의 말씀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의 명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해외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For they themselves show of us what manner of entering in we had unto you (1:9),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1:9)

So, just their...it shows with what power the Holy Spirit was working in Paul and those companions of Paul as they came to this church. It was really

miraculous that this church should be so effective, and yet so young. And it can only be attributed to the fact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이렇게, 다만 그들.. 그것은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그의 동행 들이 이 교회에 왔을때 일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할수 있던것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실로 밖에는 돌릴수가 없습니다.

What a mistake we make today when we try to relegate this power of the spirit only to the Biblical days. What a mistake we make today when we place such and emphasis upon the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and seeking to establish people in the faith by just fancy speeches, clever talk. We need the dynamic of Spirit that the word of God might not come not just in word only, but in the power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 of God. Because of that,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오직 성경시대에만 일어나는것이라고 미루는것은 큰 실수 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리한 대화와, 유혹하는 말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를 구하는 일과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허풍스런 말에 집중한다면 이것은 큰 실수 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역동적인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 영의 실제적인 활동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they]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he true God (1:9);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1:9);

In Greece, they had many idols. Paul, when he came to Athens, he'd found his spirit just torn as he looked at this metropolis and saw this city that was wholly given over to idolatry. It just really ripped him up inside to see the idolatry there in Athens. So he, though he was really trying to, you know, cool things down, he just had...I mean his reception in Europe wasn't with a lot of fanfare.

그리스 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왔을때 우상숭배에 전체로 넘겨진 이 도시를 보고 그의 영이 찢어지는 듯하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아덴에서 의 우상숭배는 정말로 그를 안으로 부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력했습니다만, 차가운것을 내려놓은것처럼, 제 말씀은 그는 유럽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They didn't have the band out to greet him and banners waving "welcome" you know. But in Philippi, he was beaten and kicked out of town. Came to Thessalonica where he had to leave town, and the people where he was staying got arrested and had to post bail, just because they kept Paul.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내걸고 악대를 준비하여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빌립보에서는 맞고 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왔을때는 바울과 있음으로 인하여 같이있던 사람들은 체포 되었고 보석금을 내야했고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Came to Berea and he had to leave Berea because of the riots that ensued in his ministry there. So they said, "Hey, look, we'll stay and help establish the church here in Berea. You, Paul, go on down and get an R&R in Athens, you know. Sort of lay low for a while. Tough sledding here in Greece."

베뢰아 왔을때는 그는 선교지에서 계속된 난동때문에 베뢰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이, 이것좀 보게. 우리가 이곳에 남아 베뢰아에 교회를 개척하는것을 도울테니 바울, 자네는 아덴에서 R&R을 얻기위해 내려가게. 잠시동안 가만히 있어. 이곳 그리이스는 힘든곳이야"

So Paul went down to Athens, and seeing a city wholly given over to idolatry, he couldn't just kick back and lie still. His heart was burning, and so he started sharing with the Athenians. They said, "Come on up to Mars hill and we're gonna, you know, give ya your audience up there. You can speak to all of us and share this new religion." For the Athenians spent their whole lives just, you know, arguing and wanting to hear some new thing.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왔습니다만 도시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것을 보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을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타올랐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스 언덕으로 오시오 그곳에 우리가 청중을 모을테니. 이 새 종교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덴사람들은 새로운것에 대하여 듣고 변론하기를 위해 평생을보낸사람들입니다.

So they gave Paul his day there on Mars hill. And as he begun his speech to them, he said, "I perceive that you are very religious people because as I've been going through your city down here I've noticed all of the gods that you have." And he said, "I came across one little altar and it was inscribed 'to the unknown god'. I'd like to tell you about that God."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마스 언덕에서 하루를 허락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며 이곳에 있는 모든 신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매우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임을 깨달았오” 그리고 “ 내가 이곳에 와서 한 단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있는것을 보았오”. 이제내가 그 신에 대하여 말하리이다”.

In Greece, they had deified all of the emotions of man: the god of love, the god of hate, the god of fear, the god of peace, the god of joy. They deified everything. Some fella thought, “Well, we may have missed one and we don’t want him to be angry with us so let’s build an altar to the unknown god so he won’t feel neglected, you know.” But they worshipped Aphrodite, they worshipped Narcissus, they worshiped Bacus, they worshiped Zeus, all the various idols. But these people had turned from the idols to worship the true and the living God.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신, 증오의신, 두려움의 신, 평화의 신, 기쁨의 신.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마도 하나를 빼 먹은것 같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단을 하나 쌓아놓으면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 화내지 않겠지” 그들은 아폴로를 숭배하고, 나시서스를 숭배하고, 바쿠스를 숭배하고, 제우스를 숭배하며 모든 우상을 숭배 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우상숭배로 부터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것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We usually think of idolatry as something of a past history of man or something that is only found in primitive cultures. Not so. We can even find idols in churches: images, statuaries, though it has been specifically forbidden in the scriptures, yet it does exist.

우리는 우상숭배를 오직 원시 문화안에서만 발견되는 어떤것 혹은 인류의 지난 역사에 있었던 어떤것 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안에서조차도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조상들이 성경안에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When a person begins to worship an idol or a relic, it is a sign that that person has lost the conscienceness of God and the presence of God. God, oftentimes, works through instruments. God worked through the cross to bring our salvation, but then to take splinters of the cross and begin to venerate splinters of the cross show that the people have lost the truth behind the cross.

□□□□□□□□□□□□□□□□ □□□ □,그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conscienceness□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십자가뒤에 숨겨진 진실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십자가의 조각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조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God used the brass serpent in the wilderness to bring healing to Israel from the bites of these poisonous snakes. But there came a time in the history of Israel when Hezekiah was king that they were worshipping this brass snake. They had kept it. It had become a religious relic and people were coming and worshipping this brass snake. So that Hezekiah broke the thing and he said, "Nahushcan" It's just of a thing of brass; it's not God. But the worship of it indicated that loss of conscienceness of God within their life, but also a deep desire to experience God again.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뱀을 이스라엘을 독사의 물림에서 치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 하시기아 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속에서 보면 그들은 이 구리뱀을 숭배했었습니다. □□□ □□□ 보관하였고 그것은 □□□□ □□□ □어 □□들□와서 이 구리뱀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시기아 왕이 이것을 파괴하고 말하기를 "nahushcan"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구리로 만든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숭배하는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conscienceness를 잃어버린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또한 하나님을 다시한번 경험해보고싶은 깊은 욕망일수도있습니다.

Now, the idols that they had made to these various passions, or the various emotions, or various concepts were more honest than people today. For we still have these as idols within our hearts, many times, though we may not have made some little form that we set on a table and put little flowers around and kneel before each morning and light candles before each night. But we can be burning incense in our hearts. There are those today who are worshipping

Narcissus. There are those today who are worshipping Aphrodite, those today who are worshipping Bacus, Zeus; they just don't have idols, except within their heart.

이제, 그들이 여러가지 열정으로 □□□□ □□들, □□ 여러가지 감정들, □□ 여러가지 □□들□ 오늘날의 □□□□ □□□□입니다. □□□ 많은 경우 □□□ □□□□ □□ □□ □□ □□□ □□어놓고 매일 저녁에 초에 불을 켜고 □□마다 그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향을 태울수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마음속을 제외하고는 우상은 없지만 어떤이들은 narcissus(□□□로 변한 미남자))□ □□□□ □□□□ □□□□입니다. 어떤이들은 Aphrodite(사랑의 여신)을 숭배합니다. 어떤이들은 Bacus(술의신)□, zeus(제우스신)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Now they have turned from these idols to the true and the living God.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even Jesus, which delivered us from the wrath to come (1:10).

이제 그들이 이러한 우상으로 부터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 왔습니다.

또 죽은자들 가운데서 다시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견지시는 예수시니라(1:10)

Now,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at the end of each of the first four chapters Paul makes reference to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an important part to a person's faith and belief system. For it is really the hope that sustains us. And so, the patience of hope and here he broadens out of it, "as they were waiting for God'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even Jesus which delivered us from the wrath to come."

이제, 첫번째 4장들의 끝 부분에서 바울이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것은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인내를 이곳에서 그는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죽음으로 부터 부활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How much doctrine is involved in that little statement right there?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by God the Father, and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to deliver us from the wrath to come. Now we are waiting for Jesus to deliver us from the wrath to come. That wrath to come could be a reference to the eternal punishment that God is going to visit upon those who have rejected Him, but it also could very well refer to the wrath to com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And as we go further in Thessalonians, we'll find that God has not appointed us unto wrath. Jesus is going to deliver us from the wrath to come.

얼마나 많은 교훈이 그 조그만 말씀 그곳에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신약 성경 에서의 중심 말씀 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 하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찾아올 영원한 형벌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대 환난 기간 동안에 찾아올 환난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 들어가도록 허락 하지 않으신것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구하십니다.

During the period of the Great Tribulation when the sixth seal is opened and these cataclysmic judgments are taking place in the universe, awesome fearful things happening.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 chief captains and all will be hiding, calling unto the rocks and un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the Lamb, for the day of His wrath has come and who shall be able to stand?" (Revelation 6:15-17)

대환난 기간 중 여섯째 인봉이 열리면 이 온세상에서 감당할수 없는 심판이 내려지고 형용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 종파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란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요한 계시록 6:15-17)

The wrath to come. There is coming the wrath of God upon this earth in the Great Tribulation, and I do not believe that it would be proper scriptural exposition to not include that in the deliverance of the Lord for His saints. I

believe that it is an all-inclusive deliverance from the wrath to come, the Great Tribulation, as well as the future judgement of the unbeliever. More about that as we move into Revelation on Thursday nights, and more about that as we move into Thessalonians next Sunday night.

환난은 다가옵니다. 대환난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때에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전하지 않는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함께 장차 올 대 환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요일 밤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말할것이며 다음 일요일 밤에 데살로니가 서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hapter 2

FOR yourselves, brethren, know our entrance in unto you, that it was not in vain (2: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2:1)

Now, Paul evidently had quite an entrance to the city of Thessalonica for he makes reference to it three times here in the first, in the opening part of this letter: but "it was not in vain."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시에 들어가는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서한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 에 세번이나 " 헛되지 않음을" 거론 하고 있습니다.

But even after that we had suffered before, and were shamefully entreated, as you know, at Philippi (2:2),

너희 아는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2:2),

I mean, they had really suffered. They were no doubt a real beating that was inflicted on these fellows. And having coming directly from Philippi, the marks still quite obvious.

So...

제 말은, 그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매맞음은 큰 영향을 준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바로 돌아 왔으므로 그 상처는 여전히 있었을것입니다.

그래서,

after we had suffered, were shamefully entreated, as you know, at Philippi, we were bold in our God to speak unto you the gospel of God with much contention (2:2).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2:2)

Because there was a lot of contention raised by the unbelieving Jews there in Thessalonica against Paul. We are told in the book of Acts that they were contentious because they were envious at the great crowds. By the time the third Sabbath came, the whole town had gathered together to listen to the message that Paul was proclaiming, and the Jews became envious, jealous.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항하여 믿지않는 유대인에 의하여 일어난 많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청중들을 시기하여 소동을 피운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안식일이 되었을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기위하여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And so they then stirred up a group of men who were of the base sort to beat them, to lie against them, to false...to give false charges. These men are against Rome. They're rebelling against Rome and all, and perpetrated, of course, the beatings of them and the imprisonment in the dungeon. So as they preached the gospel in Thessanloica, these Jews stirred up contention there and they were so contentious that when they heard that they'd heard that they've gone to Berea, they came down to Berea to stir up trouble down in Berea.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하여 반항하였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물론 매맞고 토굴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가에서 복음을 전파할때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소동을 피우고 또 그들이 베뢰아로 갔다는소식을 듣고 그들은 베뢰아까지 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For our exhortation was not of deceit, nor of uncleanness, nor in guile (2:3):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꾀계에 있는것도 아니라(2:3):

Paul said, "We were straightforward with you. We exhorted you in a straightforward manner. There was no endeavor to deceive you, there was no kind of hidden meaning, no guile...straightforward."

바울은 “우리는 당신에게 직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직선적인 방법으로 권면 하였습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하여 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숨겨진 뜻도 없이, 교활하지 않고 직선적이었습니다.”

But as we were allowed of God to be put in trust with the gospel, even so we speak; not as pleasing men, but God, which tries our hearts (2:4).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2:4)

And so, they had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before God. And how important that we have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to God. I think that that's one of the problems today with a lot of people. The fear of God is not in their heart. They are not really honest before God and before the people. A lot of exaggerations, a lot of deception.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갖는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중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습니다.과장하거나 속이기 일수입니다.

Keith Ritter who labored with us here at Calvary for many years and now is laboring for us in his ministry over in China, Japan before coming to Calvary, was attending another church in the area. And a part of Keith's ministry in the other church was to help frame the bulletin and he was given the typed out messages of the pastor six months in advance. And in a message that was to be preached six months down the road, the pastor would be using an illustration. And the illustration would say, "Last week my secretary came in and said this and this and this," you know, and it was a sermon to be preached six months from

now. Well, that bothered Keith. In fact it bothered him so much he left the church, because there were a lot of illustrations that were not really true, relating of events that really didn't happen, but it made great sermon illustration.

갈보리에 오기전에 일본에서, 그리고 몇년전에 이곳 갈보리 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했으며 지금은 중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키이츠 리더 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참석했을 때 었습니다. 그교회에서 키이츠의 목회의 한 부분은 계시판의 윤곽을 만드는일 도와 주는 것이었으므로 6개월 앞당겨 인쇄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가르칠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목사님은 예화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에는 “ 지난주 내 비서가 와서 이렇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6개월 후에 가르칠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키이츠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를 괴롭혀 결국 그교회를 떠나게끔 했는데 그이유는 그 많은 예화들가운데 에는 실체가 아닌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설교 예화 이었지만 실제로 그사건에 관련하여 일어난것들이 아니었습니다.

Paul said, " I didn't have any of that. We were straightforward because we know that God tries our hearts; God knows our hearts." That awareness, and thus the honesty before God is so important.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것들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알기때문에 직선적이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앞에서 정직한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For neither at any time did we use flattering words, as you know, nor a cloak of coventousness; For God is witness (2: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것을 하나님이 증거 하시느니라.(2:5):

And they were aware of that fact that God was witness. The fear of God was in their hearts and surely that's what we need today; that we have a true fear of God within our hearts.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증인 이시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것과 함께

Nor of men did we seek glory, neither of you, nor yet of others, when we might have been burdensome, as the apostles of Christ (2: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2:6):

We didn't seek your support, though as apostles we could have sought your support, but we didn't.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도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하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even as a nurse who cherishes her children: So being affectionately desirous of you, we were willing to have imparted unto you, not the gospel of God only, but also our own souls, because you were dear unto us (2:7-8).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2:7-8)

Now, again, we have a beautiful insight into the heart of the apostle here, and no wonder he was so effective. He was clean; he was honest; he was straightforward. He wasn't there to make a buck for himself; he wasn't there to enrich himself or to get glory for himself. He was there because he loved them earnestly with a Godly love and wanted to bring them the glorious truth of Jesus Christ which had transformed his own life.

이제, 다시, 이곳에서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마음속을 들여다볼때 그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것은 이상한일이 아닙니다. 그는 깨끗했었습니다. 그는 정직 하였습니다. 그는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자신 돈을 벌기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그자신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신을 변화 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실앞에 그들을 데려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nd so...

그래서...

You remember, brethren, that our labour and travail (2: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것을 너희가 기억 하리니(2:9)

That word labor again; toiling into the point of weariness and travail.

For laboring night and day, because we would not be chargeable unto any of you, we preached unto you the gospel of God (2:9).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하였노라(2:9).

So, he worked night and day in order that he might provide for his own needs, in order that he might preach to them the gospel of God, so that no one would actually accuse him of being a mercenary. "Well, you're just in it, Paul, for the money. You know, you come in and ya take a big offering, and then you leave town." No way. He labored with his own hands to provide for the needs of his group that he would not be chargeable to any of th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ou are witnesses, and God also, how holily and justly and unblameably we behaved ourselves among you that believe (2:10):

우리가 너희 믿는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 하시도다.(2:10)

I mean, they lived straight circumspect lives. They lived holy lives. They lived unblameable kind of lives. God help us. No wonder the witness of the church is so weak and so anemic, because of the lies of many of those who are out running the circuit doing such damage. God help us.

제 뜻은 , 그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교회의 증인들이 빈약하고 무력한것은 그것을 파괴하는것을 반복하는 그들중에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As you know how we exhorted and comforted and charged every one of you, as a father does his children (2: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2:11),

Paul's ministry, I love it. Here is the insight, really, to the true minister: one who travails and labors among the people, one who is not seeking the glory of the people, one who just is gently with them as a nurse cherishing their children and now as a father, his children...teaching, exhorting, comforting.

바울의 목회를 저는 사랑 합니다. 정말 통찰력있는 진실한 목회자 이었습니다: 사람들 과 함께 고생하며 노력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간호하고 , 이제는 아버지로써, 그의 아이들을...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That you would walk worthy of God, who has called you unto his kingdom and glory (2: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2:12).

In other words, you are a prince, a princess. You're children of the king. Walk worthy of God's kingdom and God's glory. And this beautiful exhortation to them:

다른 말로 당신은 왕자이며 공주 입니다.당신은 왕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걸어가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For this cause also thank we God without ceasing, because,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of us, you didn't receive i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is in truth, 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s also in you that believe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취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2:13).

So they received it as God's word.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For ye, brethren, became followers of the churches of God which in Judaea are in Christ Jesus: for ye also have suffered like things of your own countrymen, even as they have of the Jews (2: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 받은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 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나라 사람들에게 동일 한 것을 받았느니라(2:14):

The church was experiencing persecution in Israel, in Judea. They had already had several persecutions that by which the church was scattered. And so here, these in Thessalonica were having problems, even as the church in Jerusalem had had problems.

교회가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탄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번의 종교적 탄압 때문에 교회가 분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데살로니가 에서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Suffering of their own countrymen, [Speaking of the church in Jerusalem] and of the Jews: Who both killed the Lord Jesus, and their own prophets, and have persecuted us; and pleased not God, and are contrary to all men (2:14-15):

Quite an indictment that Paul makes against the Jews here: they killed the Lord Jesus, they killed their own prophets, they persecuted us and they're contrary to all men.

이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것은 불만 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죽였으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그들은 모든 사람을 반대한다.

I have, in my mind, been writing a book. I don't know if it will ever get on paper. But I've been writing a book addressed to the Jewish people, and I was thinking of a title: Do You Always Crucify Those Who Love You? Here is a group of people that somehow find it very difficult to receive love without being suspicious, without looking for some ulterior motive, and perhaps for good reason. Because of the treatment that they have received from the world, and so much anti-Semitism and all, that whenever anyone shows a genuine concern or love for them, they seem to get suspicious. But then they begin to almost deliberately cut those persons off.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책한권을 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언제 종이에 옮겨질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들에게 책을 쓰고 잇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생각하고 잇었습니다: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십자가에 못박습니까? 여기에 어찌되었는지숨어잇는 동기를 보지 않고는 그리고 아마도 좋은 이유와 의심이 없이는 사랑을 받아들이기예 매우 힘든 한 모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으로 부터 받는 많은 반유대주의와 모든것 그러한 대접 때문에 언젠든 어떤이가 보여주는 진정한 생각 혹은 그들을 사랑하는것 까지도 그들은 의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Just recently I started getting a lot of bad press in Israel, totally false. Accusations being made that are completely spurious. People are writing things about me that I've never done, I've never been, they've never happened and yet, for some reason or another, I've started to get it of late in the press in Israel. And it is interesting because all I've ever had is a tremendous love for Israel and yet, they always look with suspicion. Why do you love us? Why do you give to us? Why do you support us? And they begin then to interpret all kinds of false motives. "Well, you're just trying to get close to us so you can missionize us or convert us. Or you're only doing it, you know, because you're trying to fulfill prophecy and get the Lord to come back or you know..." They can't just accept love because, you know, you are God's people and we love you because you're God's people.

최근에 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나쁜 보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잘못되어 잇었습니다. 완전하게 가짜로 비난이 만들어 지고 잇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간에저에 관하여 제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것, 가본적이 없는곳,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조차 않은것에 대하여 쓰기 시작하였고, 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보도를 늦게나마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거창한 사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의혹을 가지고 보기때문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줍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 줍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때 온갖 잘못된 동기를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음, 당신은 우리에게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도하거나 개조하기를 원하지요. 혹은 당신이 알고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는것은 예언이 성취되는것을 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당신이 돌아오는것을 보기 위하여 겠지요...." 그들은 단순히 그 이유 만으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I personally do not have any great burden to evangelize the Jews any more than I do any other race or group of people. I feel that evangelism of the Jews is something that's totally in God's hands. If He's blinded their eyes, only He can take away the blind of the eyes of the Jews. So I leave their evangelism to God. I can't undo what God has done. And if blindness is happened in part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Gentiles become in, then I'm not gonna waste my efforts trying to undo what God has done. Let God undo that. And my ministry is not to the Jews, but to the church, which is comprised of people from all backgrounds, for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Barbarian, Scythian, bond or free,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So evangelism of Israel is not my motive in loving them.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집단이나 다른 인종보다도 유대인을 복음화 하는것에 대하여 어떤 중대한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전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유대인들을 멀리 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복음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일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눈이 멀도록 하셨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일을 뒤집기 위하여 나의 노력을 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저의 목회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도, 그리스인도, 야만인도, 스키타이인도, 아닌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 도, 그리스인도, 야만인도, 스키타이인도, 아닌 님나의 내각은 유대인에게, 그러나 모든 배경에서 사람을 함유되는 교회에 아니다 이다, 노예이던 자유인이던 그리스도는 모든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동기가 될수 없습니다.

And I am also convinced that as far as prophecy is concerned, it's in God's hands and He's gonna fulfill what He has said He's gonna do without my help. I do not have any grandiose concept of myself as, you know, God has chosen me to fulfill His prophecies in these last days. I don't feel like I'm any special instrument of God any more than anybody else who has committed their life to God. You know, so I don't feel any divine calling to go blow up the Dome of the Rock or anything else, you know, which I've been accused of in the press of late. Supporting the terrorist groups and all, or wanting to blow up the Dome of the Rock and this kind of stuff, and somehow they got my name in with a bunch of other people's names who I don't really know. They got me meeting regularly with them and I didn't even know they met.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comes of it.

그리고 저는 예언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저의 도움없이 하나님이 하실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저에 관한 어떤 거드름을 피우는 관념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저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친 그 누구 보다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야시다 시피 저는 바위로된 천정을 날려버리는 혹은 다른것이라도 사명을 느낄수 없습니다. 최근에 출판물에 의하여 협박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과 제 이름을 묶어서 제가 테러분자들을 돕고 있다고, 혹은 바위로 된 천정을 날려 버리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원한다고, 그들은 제가 그들과 만나는것조차 모는데도 그들과 정규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무엇이 어떻게 될는지 흥미로운 일입니다.

But are contrary to all men, those that love them, they have difficulty receiving them.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 그들은 그들을 어렵게 영접하였습니다.

And so they would forbid Paul to speak to the Gentiles that they might be saved, and they fill up their sins always: for the wrath is come upon them to the uttermost (2: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2:16)

And so, these people who, through their rejection of Jesus Christ and God's provision for their salvation, have brought such hardships upon themselves.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가져 왔습니다.

But we, brethren, being taken from you for a short time in presence, but not in heart, endeavoured the more abundantly to see your face with great desire (2: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2:17)

So, Paul said, "I had to leave in a hurry." Actually, he got out of there just before the officers came to Jason's house to arrest him. "Though I left my body, my heart's still there. Man, I still, I long to see...I really desire to be there and to be with you."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서둘러 떠날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이슨의 집으로 온 관리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빠져 나왔습니다. “내 몸이 그곳을 떠났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나는 아직도, 내가 그곳에 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정말로 원했었다”.

Wherefore we would have come to you, even I Paul, once and again; but Satan hindered us. 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rejoicing? Are not even ye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at his coming? (2:18-19)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라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 하실때 우리 주 예수앞에 너희가
아니냐.(2:18-19)

Isn't this our hope? Isn't this our joy? Isn't this the crown of my ministry? That when the Lord comes, you're gonna be there, and you'll meeting together with Him in His kingdom. That's the purpose, that's the joy, that's the crown of our ministry. 이것이 우리의 희망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 이지

않나요? 이것은 저의 목회의 왕관 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경우, 주님의 왕국안에서 주와 함께 여러분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목적,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왕관 입니다.

John, in writing his epistle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walk in truth" (I John 4). And so for the minister, the real joy, the real hope, the real reward, the crown of the ministry is in the lives of the people who, through the word of God, have been transformed and now have that glorious hope of being in Christ in His kingdom. And our joy and crown will be fulfilled when we sit there together before the throne of the Lamb, worshipping together, and we look around and we see those who God brought into our lives, that we might impact them with His love and with His truth. And there will be all the reward ever necessary for the ministry. So Paul said, "That's my joy, that's my hope, that's the crown of my ministry; you being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is coming."

요한이 그의 서한에서 말하기를,"나의 어린 자녀들이 진실가운데 걸어가는것을 듣는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요한 일서 4장). 그리고 목회자에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상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의 왕관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왕관은 우리가 어린양의 가시앞에서 같이 앉게 될때에, 같이 경배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르신자들을 우리가 둘러 볼때에, 그의 사랑과 그의 진실함을 그들에게 채워 져올때에 가득하여 질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복음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상급까지도 있게 될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선교의 왕관입니다. 주님이 오실때에 여러분들이 잇게 될것 입니다.

For you are our glory and joy (2: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2:20)

Chapter 3

WHEREFORE when we could no longer forbear, we thought it would be good to be left at Athens alone; And we sent Timothy, our brother, and minister of God, and our fellow laborer in the gospel of Christ, to establish you, and to comfort you concerning your faith (3:1-2):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테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 함으로(3:1-2):

Paul was there in Athens waiting for Silas and Timothy to arrive. He was discouraged. When Timothy came, he was concerned about the church of Thessalonica. "We were there such a short time. Go back Timothy. I'm gonna go on down to Corinth; you go back and find out how they're doing." So, "When I couldn't take it any longer, I was so concerned about you, worried and concerned for you, I sent Timothy our brother that he might establish you and comfort you concerning your faith."

바우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테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디모테가 왔을때 그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하여 묻었습니다. “ 우리가 그곳에 너무 짧은 시간을 잇었다. 디모테야 다시 돌아가거라. 나는 고린도에 내려 갈것이다. 너는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 보거라.” 그리하여 “내가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염려 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나의 형제 된 디모테를 보내니 그가 너희를 강건 하게 할것이요, 너희들이 염려 하는 믿음을 굳건 하게 할것이라”

That no man should be moved by these afflictions: [Or by the tribulation by the efforts of the enemy to destroy them.] for yourselves know that we were appointed thereunto (3:3).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새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3:3).

In other words, "Don't be discouraged because I've had such a bad time, I've been afflicted; God's appointed me for that."

다른 말로는 “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위하여 세우셨다.”

For verily, when we were with you, we told you before that we should suffer tribulation; even as it came to pass (3: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것을 너희가 아느니라(3:4).

You know Paul, he said, "Hey, I'm gonna suffer tribulation man." He prophesied it, and he said it came to pass. Now this is an interesting thing to me. Paul said, "I was appointed to this." When Paul was converted on the way to Damascus and the Lord spoke to Paul and called him to go to the Gentiles, the Lord told Paul on the road to Damascus all of the things that Paul was gonna have to suffer for Jesus' sake. Huh? That's no way to call a man into a ministry in my estimation.

여러분이 바울을 알다싶이 그는" 여러분들 저는 고난을 격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을 하였듯이 그에게 닥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흥미 있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 나는 이것을 위하여 정하여 졌다" 바울이 다마스카스로 가는 도중에 변화 되면서 주님은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다마스카스 선상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격어야될 모든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계산 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를때의 방법으로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You know, when we seek to inspire men to the ministry, we try and tell them of all of the glorious things that will happen to you as a servant of Jesus Christ, you know. Oh, you'll have the joy of seeing lives transformed and you'll have the thrill of being able to, you know, share God's love with people. And we try and, you know, the people are out there hungry; they're, you know, wanting to hear the gospel. They're waiting to hear. And oh, you'll have the chance to just...you know. That's not the way the Lord called Paul. When He called Paul to his ministry He said, "Now, Paul,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re gonna suffer for my name's sake. You're gonna be beaten; you're gonna be stoned." And He went on and laid out for Paul all of the sufferings.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가 목회에 대하여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힘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것에 일어 날수 있는 온갖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는 게 됨으로서 생기게 되는 삶이 변화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것을 나누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율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은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이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 을 부르셨을때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의 그의 선교에 대하여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는"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것이다. 많이 맞게 될것이요, 돌로 치임도 당하게 될것이다.” 그러시면서 바울이 격게될 많은 고초와 온갖 고난에 대하여 말씀 하시었습니다.

Jesus, when he called Ananias to go pray for Paul there in Damascus, and Ananias said, “Heh, heh, heh, oh no, not Paul. Hey, you’ve made a mistake. I’ve heard about that guy. He’s a terror. He’s been ripping up the church in Jerusalem, and he’s come down here to imprison everybody that’s calling on Your name.” And Jesus said,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and I have showed him all of these things that he is gonna suffer for my name's sake.” So, for whatever reason or purposes, God chose Paul to suffer affliction. He told him in advance.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불러 기도하게 하셨을때, 아나니아가 “헤헤헤, 오! 바울은 아닙니다. 주님이 실수 하셨어요. 제가 그녀석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녀석은 나쁜녀석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는이들을 감옥에 넣기 위하여 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 하시기를” 그는 나를 위하여 선택된 자요,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격어야 될것을 내가 보여 주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든 간에 하나님은 바울이 격어야 할 고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 하셨습니다

Now, I do believe that at that point Paul did have the power of choice and he can say, “Lord, call someone else. I don’t think I like that. I think I’ll just as soon spend the rest of my life making tents and tarsus and living a quite peaceable life. You know, get someone else to do your dirty work.” Paul went knowing that it was going to be affliction, knowing that he was gonna suffer, knowing that he was gonna be persecuted. God help us who are looking for the easy path. Lord, can’t you plant roses along the side. You know, just sort of carry me along and make it easy. Lord, as long as things are going smooth, I’m gonna serve You with all my heart. But the moment some affliction or trouble comes along, “Aw, wait a minute, I didn’t bargain for this.”

이제, 나는 바울이 그 시점에서 선택의 능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불러 주십시요. 저는 그것이 정말 싫습니다. 저는 텐트나 만들면서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싶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더러운 일을 시켜 보십시요.

바울은 그일에 고난이 닥아올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할것을 알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쉬운길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주님 왜 길가에 장미를 심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싶이 그날 저를 들어다가 쉽게 놓아 주시지 않나요. 주님 정말 편안 하고 부드럽게 갈수 있는데 까지,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을 다하여 봉사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그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순간 . 오! 잠깐 만요. 저는 이렇게 되는것은 싫습니다..

No wonder the writer of Hebrews wrote to those who were complaining and said, "What have you got to complain about? You've not yet resisted unto blood striving against sin. Show me your scars."

"So don't be upset," Paul said, "because of the affliction that came, I told you it was gonna happen. You remember that."

항상 불평하면서 그것을 쓴 유대의 작가가 말한것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무엇에 대하여 불만하느냐? 너희 최악에 대하여 피가 끼꾸로돌아갈 정도로 대항하지도 않았으면서 . 너희들의 상처를 보여 다오

“ 그래서 불평하지말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그것은 일어난다 말하여듯이 고난은 오게 된다. 그것을 기억 하여라”.

For this cause, when I could no longer forbear [because I couldn't really take it any longer], I sent to know your faith, lest by some means the tempter have tempted you, and our labor be in vain (3: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3:5).

"I sent to know about how your faith was doing because I didn't want your faith to be in vain, by Satan coming and ripping it off."

But now when Timothy came from you to us, and he brought us the good tidings of your faith and charity [love], and that you have good remembrance of us always, desiring greatly to see us, as we also to see you: Therefore, brethren,

we were comforted over you in all of our afflictions and the distress by your faith (3:6-7):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잘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3:6-7):

So, when Timothy came to Paul in Corinth and said, “Oh Paul, they are going on. They’re doing great. And oh, how much they love you, Paul, and how they long to see you,” and all, it was such an encouragement to Paul’s heart and he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a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erefore, brethren, we were comforted over you in all our affliction and distress by your faith: For now we live [or are satisfied], if you stand fast in the Lord (3:7-8).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3:7-8).

They...that’s what we’re really concerned about.

그들은...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염려 하는 것은 .

For what thanks can we render to God again for you, for all of the joy wherewith we joy for your sakes before our God; Night and day praying exceedingly that we might see your face, and might perfect that which is lacking your faith? (3:9-10)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인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3:9-10).

So Paul was praying night and day for the opportunity of going back and ministering to them again, for he had been with them such a short time, he had not been able to establish them fully in the faith;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And so, "I'm praying and seeking God that somehow I might be able to come back and complete my ministry to you."

그래서 바울은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하기에는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이 너무 짧았기에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기가 충분하지 않았음으로 그들에게 다시한번 돌아가서 섬길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하던지 꼭 너희들에게 돌아올수 있게 되기를 그리함으로 너희들에대한 선교를 끝마칠수 있게 되기를기도 하는도다"

Now God himself and our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direct our way unto you (3: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3:11).

Paul's prayer:

바울의 기도:

And the Lord make you to increase and abound in love one toward another, and toward all [man] men, even as we do toward you: To the end he may establish your hearts unblameable in holiness before God, even our Father,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all the saints (3:12-13).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 하실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 하도라(3:12-13).

Again, notice at the end of each chapter he brings you again to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In chapter one, they were waiting for God's Son to come from heaven to deliver them from the wrath to come: the great tribulation that was gonna come. They were waiting for the Lord to come and deliver them. Chapter two, the end of the chapter, Paul's joy and reward, crown, was that they might be with him there in the presence of Christ that is coming. Now, in chapter

three, that God would establish their hearts unblameable in holiness, even our Father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all the saints.

다시 한번 각장의 끝을 통하여 알리게 되듯이 그는 여러분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로 데려 갑니다. 1장에서 그들은 큰 환난으로 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장차 대 환난은 다가 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어 그들을 구원 하여 주실것을 기다립니다. 2 장에서 그 장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받게될 상급 과 왕관에 대하여 기뻐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모든 성자들과 함께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할수 없는 거룩 하심으로 인하여 세워가고 계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When Jesus comes, He is coming with the saints, which means that the saints have to be with Him before they can come with Him. Now, we'll get into this as we move into chapter four. And we come into the end of chapter four, Paul is gonna spend a great deal of time talking about the coming of the Lord with the saints and for the saints.

예수님이 오실때, 성자들과 같이 오십니다. 무슨말이고 하니, 성자들은 주님과 함께 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4장으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4장이 끝날쯤에 바울은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성자들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And so we'll be dealing with the subject of the rapture of the church next Sunday night as we finish the book of first Thessalonians, dealing with chapters four and five. And we deal with those passages that do relate to the rapture of the church, being caught up to meet the Lord,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clear up some of the confusion that has arisen by taking some of the scripture out of its context. And so next week, continue and finish the book of Thessalonians, chapter four and five. Not that much reading, but surely important teaching in regards to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for His church.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들림 받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일 밤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4장과 5 장을 통하여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맥들을 통하여 교회의 들림 받음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끌려 올라감과, 그리고 기대하기는 그곳에 들어있는 문맥들을 통하여 생길수 있는 어떤 혼동을

깨끗이 정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계속하여 데살로니가서 4장과 5장을 끝내게 됩니다. 읽을것이 많지는 않아도, 다시오실 주님과 그 교회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틀림 없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again for tonight, for the privilege of studying the word of God. Thank You, Father, for the hope, the blessed hope of the coming of our Lord to save us and deliver us from the wrath to come. Lord, do establish our hearts in Your love, and may we walk in love as You would have us to walk Father: in holiness, in purity, in honesty, unblameable. Oh God, do thy work in our lives and glorify thy name. In Jesus' name we ask it, Amen.

May the Lord bless and give you a beautiful week. God Bless, God strengthen and fill you with His love. In Jesus' name.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특권을 주신 당신께 우리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장차 다가올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세워 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 안에서 걷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정직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이름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구합니다. 아멘.